



1 경기 광주시 곤지암 큐로CC는 해발 460m의 울창한 산림 속에 위치하고 있어 풍경이 뛰어나고 여름철에는 기온이 낮아 더위를 피하기 좋은 골프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2 파인 코스 시그니처 홀인 6번 파3 홀은 잘 가꾼 정원을 연상케 하는 조경과 분수, 다리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3 클럽하우스 로비에 전시된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 '알렉산더 대왕' 사진제공 | 큐로CC

울창한 산림 속 정원... "최고의 골프피서지"

서울 강남에서 40분... 접근성 최고 기온이 평균 4도 낮아 여름철에 딱 10월까지 야간개장, 조명 LED 교체 200억 투자해 코스 등 리노베이션 KLPGA와 함께 드림투어 개최까지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골퍼들에게는 고수인 동료보다 힘겨운 새로운 적수가 생긴다. 어떻게 하면 플레이를 잘 할 것인가는 골퍼에게 영원한 숙제이지만 높은 기온, 후덥지근한 '날씨 복병'과도 싸워야 하는 체력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낮에는 기력이 빠져 축축 늘어지고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1994년 개장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의 큐로CC는 해발 460m의 높은 지역에 위치해 평지보다 기온이 평균 3~4도 낮아 여름철 '골프 피서'에 안성맞춤인 골프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40분이면 닿을 수 있어 접근성이 최고다. 골프장 입구부터 클럽 하우스로 들어가는 1km 도로는 뽕나무와 느티나무가 양쪽 길을 꼭 메우고 있어 녹색 터널의 캐노피(canopy)를 연출한다. 산자락 바로 밑 소나무와 참나무, 단풍나무가 울창한 산림지역 202만㎡(60만 평)을 감싸고 있어 강원도 산골 수목원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도심 생활에 지친 골퍼들에게는 휴양지와 같은 정원이기도 하다.

봄에는 병풍처럼 코스를 감싸고 있는 높은 산봉우리부터 내려오면서 진달래, 개나리, 벚꽃, 영산홍이 저마다의 시간에 피고 진다. 여름에는 온 산을 뒤덮은 녹색이 청량감을 더해주고,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과 높은 하늘이 산과 호수 속에서 함께 물든다.

큐로CC는 프레스티지 퍼블릭(Prestige Public)

골프장으로 풍경이 아름답고 코스의 변별력이 정교한 코스로 이뤄져 있다.

27홀(파인홀, 오크홀, 로키홀) 코스는 각기 독특한 개성으로 모험과 전략의 선택이 교차하는 홀로 구성되어 있어 전략적 플레이와 기술적 능력을 시험한다. 3개 코스를 돌다 보면 다양하고 인상적인 홀들이 있어 흥미진진하다. 파인홀은 여성적, 오크홀은 남성적, 로키홀은 모험적인 코스라 할 수 있다.

● 울창한 소나무 덮인 파인홀 코스

울창한 수직의 소나무 숲 속에 조성된 길이 2900m의 코스로서 평화로운 산중 정원처럼 페어웨이는 평탄하고 그린 언드레이션은 완만하다. 아름다운 코스이지만 호수와 긴 벚겨, 도그레그 홀로 난도를 조절한다. 시그니처 홀인 6번 파3홀(145m)로 일본식 정원을 닮았다. 티샷 뒤 그린으로 가려면 연못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아가자기한 유령식 마라보 다리를 건너야 한다. 다리 양편에는 분수가 힘차게 솟아오르고 연못 주변에는 수련과 노랑, 파랑의 붓꽃이 피어있다. 카트를 타지 말고 걸어가면서 이 멋진 그림을 감상하시라.

특히 헨디캡 1번인 7번 파4홀(343m)은 티에서 페어웨이 우측 방향으로 국내에서 가장 긴 145m의 벚겨를 구불구불한 스네이크 벚겨가 그린을 향해 길게 펼쳐져 있어 인상적이다.

● 역동적인 오크홀 코스

길이 2950m의 산악형 코스로 산 중턱부터 가장 높은 해발 460m 지대에서 200m 높이 산허리를 오르내리면서 플레이하는 역동적인 코스이다.

이곳에는 골프장의 모든 홀과 계곡의 전경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특점이 있다. 산악형 코스이지만 의외로 페

어웨이는 넓고 평탄하여 초보자에게 안도감을 준다. 3번 파5홀(480m)은 헨디캡 1번이고 개미허리 페어웨이로 구성돼 스코어를 잃기 쉬운 악명 높은 홀이니 조심해야 한다.

6번 홀(파4, 344m)은 페어웨이 중간에 운치 있는 '나홀로 소나무'가 외로이 코스를 지키고 있다. 8번 홀(파5, 420m)은 그린 뒤에 병풍 같은 기암절벽이 계절에 따라 마치 산수화를 연출하는 매력적인 홀이다.

● 다이내믹한 로키홀 코스

길이 2700m 코스로 2019년 신설한 코스이다, 산악형 낙차 폭이 큰 다이내믹한 코스로 집중력과 정확성을 요구한다. 경관이 장쾌하고 모험과 전략의 선택이 교차되는 도전적인 홀들로 구성되어 있다. 로키홀의 높고 수려한 산세를 활용한 계절별 야생과 군락들이 라운딩의 즐거움과 함께 힐링을 제공한다.

2번 홀(파5, 503m)은 산 위의 티에서 페어웨이 아래로 티샷을 하는 스틸 만점의 홀이다. 세컨드 샷은 개미허리여서 양편의 OB를 조심해야 한다.

7번 홀(파5, 464m)의 연못 앞 스코틀랜드 풍의 돌담은 벚겨와 어울려 이국적인 운치를 더해준다. 그 다음 275m의 짧은 파4홀인 8번 홀의 그린 뒤 두꺼비 바위는 골퍼에게 상서로운 기운과 행운을 준다고 한다.

● 한여름 시원한 야간 골프 인기

큐로CC는 10월까지 야간 라운딩을 운영한다. 서울과 인근 도시에서 가까워 직장인들이 근무를 끝내고 야간 골프를 즐길 수 있다. 마지막 티업은 오후 6시 20분, 9홀이 끝나면 통닭을 서비스로 무료 제공한다.

기존 램프 조명을 모두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조명탑도 증설했다. LED 조명

은 야간에도 골프공의 궤적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제품이다. 눈부심이 적고 빛이 고르기 때문에 플레이에 전혀 지장이 없다. 팀으로 조명과 산림이 어우러진 야경의 운치도 만끽할 수 있으니 동반자들과 추억의 인증 샷도 찍어보시라.

● 과감한 투자... KLPGA 대회 공동 주최

큐로(CURO)는 라틴어로 '관리하다', '경영하다', '돌보다'의 뜻을 가진다. '경영하다', '돌보다'의 뜻을 가진다. '경영하다', '돌보다'의 뜻을 가진다. '경영하다', '돌보다'의 뜻을 가진다.

큐로CC는 한때 경영권 분쟁을 겪기도 했으나 2018년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인수하면서 말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 김일준 대표가 전문 경영인으로 부임하면서 200억 원을 투자하여 코스, 조명, 클럽하우스 시설까지 완전히 리노베이션하고 일류 골프장을 표방하고 있다.

아담한 클럽 하우스에는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인 고(故) 백남준 작가의 작품 '알렉산더 대왕'이 중앙에 전시돼 눈길을 끈다.

이러한 혁신의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와 함께 드림투어를 개최한다. 'KLPGA 2021 큐캐피탈파트너스 드림 챌린지' 1차 대회(8월 30일~9월 1일), 2차 대회(10월 4~6일)에 이어 'KLPGA 큐캐피탈파트너스 드림투어 왕중왕전'(10월 25~27일)이 열린다.

김 대표는 "골프장 대중화 시대에 맞춰 뛰어난 코스, 시설 관리와 함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비자인 골퍼가 만족하는 골프장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골프칼럼니스트·대한골프전문인협회 회장 26567088@naver.com

올림픽 2연패 도전 박인비 "낮선 코스, 빠른 적응 관건"

여자골프 출사표... 고진영·김효주도 "꿈 이룰 것" 협회선 금메달 3억·은메달 1억5000만원 포상금



박인비

116년 만에 열린 올림픽 여자골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골프 여제' 박인비(33)가 '국위 선양'을 다짐하며 2연패에 대한 욕심을 내비쳤다.

박인비는 6월 30일 소속사인 와우매니지먼트 그룹을 통해 도쿄올림픽 출전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시상대 맨 위에 섰던 그는 "두 번째 올림픽 출전은 나의 큰 꿈이자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며 "리우올림픽 이후 5년 동안 좋은 기량을 잘 유지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든다"고 했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3위 자격으로 올림픽 티켓을 확보한 박인비는 "한국 대표팀은 선발되기 어려운 자리인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임하겠다"며 "첫 올림픽 때는 경험도 없었고, 컨디션도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5년 전 경험을 토대로 부담감을 털어내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도쿄올림픽 여자골프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8월 4일 일본 사이타마현 가스미가세키 골프클럽에서 시작된다. 세계랭킹 2위 고진영(26), 4위 김세영(28), 6위 김효주(26) 등과 함께 태극마크를 달게 된 박인비는 "대회장인 가스미가세키 골프장은 대부분 선수가 처음 가보는 곳일 것"이라며 "결국 무더운 날씨와 생소한 코스에 누가 빨리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주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발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클래식에 참가하는 박인비는 이후 열리는 마라톤 클래식을 시작으로 다음 그레이트레이크스 베이인비테이셔널과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까지 3개 대회가 잇달아 출전한 뒤 7월 말 일본으로 건너갈 예정이다. "어떻게 이 자리에 온 만큼 올림픽 2연패를 할 기회가 되면 좋겠다. 꼭 금메달을 따서 국위선양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고진영도 매니지먼트사인 세마스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많은 선수가 나가고 싶어하는 올림픽 출전이고,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로서 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며 "나를 동안 도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올림픽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효주 역시 소속사 YG스포츠를 통해 "5년 전 TV로 봤던 꿈의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영광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올림픽은 운동선수로서 평생 꿈이다. 한국 여자골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골프협회(KGA)는 도쿄올림픽 골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포상금 3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은메달은 1억5000만 원, 동메달은 1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감독에게는 금메달 5000만 원, 은메달 3000만 원, 동메달 2000만 원을 준다. 이는 2016년 리우올림픽 포상금과 같은 액수다.

도쿄올림픽 골프 남녀 사령탑은 리우 때와 같이 최경주(51), 박세리(44) 감독이 맡고 남자부에선 임성재(23)와 김시우(26) 2명이 출전한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스포츠 종합

도쿄올림픽 무관중론 부상 마이니치 "코로나 중점조치 4주 연장"

7월 23일 개막하는 2020도쿄올림픽에 드리워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의 그림자가 여전하다. '무관중론'이 또 부상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30일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최지인 도쿄도 등에 적용된 코로나19 중점조치를 최대 4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정부 내에서 올림픽 무관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도 등

에 적용한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중점조치)의 2~4주 연장을 위한 조정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6월 21일부터 도쿄 등 9개 지역에 내려진 긴급사태를 모두 해제한 바 있다. 다만 이 중 7개 지역에 대해서 7월 11일까지 긴급사태에 준하는 중점조치를 적용했다.

만약 중점조치가 2주만 연장돼도 7월 25일 해야 끝난다. 도쿄올림픽은 그 이틀 전에 개막한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선 중점조치가 적용된 지역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상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6월 21일 도쿄도,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페럴

림픽위원회(IPC) 등과 함께한 5차 회의에서 경기장 수용 정원의 50% 안에서 최대 1만 명까지 관중을 입장시키겠다고 결정한 상태다. 여기에 7월 12일 이후 긴급사태 선인과 중점조치가 발령되면 "무관중을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단서도 덧붙였다. 따라서 중점조치가 연기될 경우에는 다시 5차 회의를 열어 관중입장 여부와 관중수 등을 재논의해야 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올림픽 경기의 관중수를 프로야구 경기 등과 같이 '최대 5000명'으로 할 생각이다. 그러나 후생노동성 및 내각관방에선 "무관중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선 기자 posterboy@donga.com

인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영혁신본부 ▲경영혁신본부장 이홍복 ◇스포츠산업진흥본부 ▲스포츠산업진흥본부장 한종규 ◇기념사업운영본부 ▲기념사업실장 차지은 ▲파크텔운영본부 ▲기념사업실장 성욱제 ◇건설화추진실장 배창환 ▲사업서비스실장 최중호 ▲분당지점장 최창렬 ▲관악지점장 김한용 ▲성북지점장 이성태 ▲강남지점장 최용필 ▲천안지점장 박재철 ▲동대문지점장 노태일 ◇경주사업총괄본부 ▲경주경영본부 ▲경주경영실장 김희재 ▲체육진흥사업본부 ▲기금관리실장

신희섭 ▲체육인재실장 김미숙 ▲체육시설안전실장 김강산 ◇스포츠산업진흥본부 ▲스포츠산업진흥실장 이성철 ▲스포츠기업지원실장 김경훈 ▲체육진흥투표권실장 김형석 ▲대중골프장사업실장 이만재 ◇기념사업운영본부 ▲기념사업실장 차지은 ▲파크텔운영본부 ▲기념사업실장 성욱제 ◇건설화추진실장 배창환 ▲사업서비스실장 최중호 ▲분당지점장 최창렬 ▲관악지점장 김한용 ▲성북지점장 이성태 ▲강남지점장 최용필 ▲천안지점장 박재철 ▲동대문지점장 노태일 ◇경주사업총괄본부 ▲경주경영본부 ▲경주경영실장 김희재 ▲체육진흥사업본부 ▲기금관리실장